

정해박해의 진원지

곡성성당



△곡성성당 본채 모습

곡성 지방에 복음이 전래된 시기는 1815년 을해박해를 피해 강원도와 경상도 등지에서 남으로 내려온 신자들이 이곳 덕실마을(송병리)과 미륵골(여산리) 일대에 정착하고 부터이다. 이들은 신앙생활 유지와 생계수단으로 가마터를 열고 용기를 구워 팔며 신분을 은폐하고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1827년(정해년) 2월 어느날 덕실마을 가마터를 여는 축약연 자리에서 신유박해 때 순교한 한덕은(보르바스)의 아들 한백겸이란 예비신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소 성격이 포악하고 주사가 심하여 이날도 거나하게 취해 행패를 부리고 주막 여주인에게 손찌검을 하게 되



성당 내부 모습

자 평소 감정을 가지고 있던 남편 전씨가 찾기에 천주교 서적 등 물증을 가지고 그 길로 곡성 현감에게 한백겸과 신자들을 고발하였다. 곡성 현감은 관내에 천주교도가 있다는 사실에 대경신색하여 닥치는대로 교우들을 잡아들이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이 때 잡혀 온 교우들은 곡성현의 객사현, 곡성성 자리를 임시 감옥으로 개조하여 수용하였고 3일동안 모진 고문이 이어지자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배교하게 되었고 끝까지 항거한 신자들은 전주감영으로 이송되었다.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포졸들은 피신한 신자들을 잡기 위하여 경상도, 금산, 용담, 임실, 장성, 고산, 전주까지 탄압의 손길을 확대하였는데 이 때 잡힌 교우들은 전주에서만 240여 명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공명성에 앞섰던 곡성현감과 전라감사는 천주교도들을 교묘하게 탄압하고 박해를 확대하여 경상도, 충청도, 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하게 만들었다. 정해박해는 그해 윤력 5월까지 4개월여간이나 계속되어 여느 박해와 달리 그 기간은 짧았지만 탄압의 정도는 매우 심하였고 특히, 전라감사의 추위, 더위, 기갈 등을 동반한 고문은 악명이 높아 잡혀온 500여 명의 신자 중 대부분이 배교하였다고 한다.



△옥터 성지

정해박해 후 130여 년이 지난 1957년 천주교 광주교구장 현 하를드 주교는 선조 신앙인들의 피흘린 터전인 박해의 진원지인 이곳 곡성에 본당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허미카엘 신부를 파견하여 비록 신자수는 10여 명에 불과했지만 박해당시 감옥이었던 자리에 제단을 봉헌하고 1958년 10월 6일 마침내 곡성성당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08년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옥사를 복원하고 가마터와 성당을 잇는 정해박해 기념성지를 조성중에 있다.

천주교 곡성성당

516-805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5구 425-1 전화 061) 362-1004 팩스 061) 363-1004

미사시간
화 19:30 / 수 10:00 / 목 19:30
금 10:00 / 주일 06:00, 10:30

승병리 (덕실마을) 가마터

1827년 2월 정해박해의 발발지인 곡성 승병리 주막터, 가마터를 찾아 보는 것도 좋겠다(곡성성당에서 2km(40분 소요).



승병리 주막터의 모습과 승병리 가마터에서 나온 토기바탕



승병리 가마터 곡성군 옥곡면 승병리 425번지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1코린 15,13-14)

교통편 - 버스



옥곡성당
- 금호터미널(경천동) → 옥곡(40분 소요)
- 06:05(첫차)-21:30(마지막 차)

곡성성당
- 금호터미널(경천동) → 곡성(1시간 소요)
- 06:35(첫차)-20:30(마지막 차)

신앙생활 ↔ 관공생활

순례 4

순례(巡禮) 어떤 신성한 발원지나 중요한 종교적 행위로 인해 봉헌된 장소에 신자들이 기도를 위해 방문하는 여정입니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옥과성당



현재 옥과성당 모습

옥과(玉果) 본당은 1953년 경 현재의 우체국이 있는 곳에 균용천막 1동을 설치하여 교구에서 유급 전교회장으로 강인길 베드로를 임명하고 이 지역신자 50여 명의 신자들이 공소예결을 하게 되었으며, 1958년 곡성 문정 중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던 이경분 형제가 자신 소유의 토지 998평을 기증하여 곡성본당 소속 옥과공소로 설립되었다.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공소의 활성화와 전교활동을 위하여 선교사가 파견되었으며 1999년 9월에는 수녀원 및 조립식 교육관을 지어 성모영보수녀회 소속 수도자 2명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후 2003년 2월 8일 준본당으로 승격되어 사제가 부임함으로써 명실공히 교회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2005년 8월 26일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지리적으로 광주 근교에 위치해 있는 옥과본당은 인근에 전남과학대학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교세가 확장되었고, 이로 인해 성전을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성전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미사가루를 제조하고 판매하기를 수년간 추진하여 현재의 새 성전을 건립하게 되었다.

천주교 옥과성당

516-911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157 전화 061) 362-5107 팩스 061) 362-5258

미사시간
목 10:00 / 화 19:30 / 수 19:30
목 10:00 / 금 18:30 / 토 16:00 / 주일 10:30

정해박해 丁亥迫害

1827년(丁亥年) 전라도 곡성(곡城)을 시작으로 전라도 지역, 경상도 상주(尙州), 충청도와 서울의 일부지역에 일어난 박해로서 1801년 신유(辛酉)박해 이후 전국적인 규모는 없었으나 신유박해의 마무리를 위해 반포된 (척사윤음) (斥邪諭音)은 천주교탄압의 법적 근거가 되어 1815년 을해(乙亥)박해 등 전국 각지에서 소규모의 박해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우들은 정하상(丁夏相)을 주임으로 교회 재건과 성지자 영입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826년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우리나라에 서신을 보내 일본에서 배를 타고 도망친 6명의 천주교인을 체포해 달라고 요청, 관원들의 천주교인 밀고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정해박해는 시작되었다.

곡성에서 시작된 박해는 전라도 전역에 퍼급되면서 240여 명의 교우들이 체포되어 전주감영으로 이송되었고 이어 4월 22일 (음) 전주포졸들이 경상도의 상주에서 신태보(申太布)를 체포, 전주로 압송해 가자 이를 계기로 경상도에서도 박해가 시작되어 상주에서 5~6개소의 교우들이 습격당하여 많은 교우들이 체포되었다. 또한 서울에서는 4월 21일(음) 이경연(李景淵)이 체포되어 전주로 압송되었고, 충청도의 단양(丹陽)에서는 경상도의 박해를 피해 유성태(劉成泰)의 집으로 피신한 온 교우들이 체포되어 충주(忠州)로 압송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서울 등지에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500여 명의 교우들이 체포되었으나 전라도에서 이경연·이일인(李日寅)·정태봉(鄭太奉) 등 8명이, 경상도에서 박보룡(朴保龍)·김사건(金思堅)·김연우 등 6명이, 충청도에서 유성태 등 500여 명중 15명만이 옥사 또는 처형당해 순교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배교하고 석방되거나 유배되었다. 이것으로 정해박해는 종식되었으나 피해가 가장 큰 전라도 지방의 교회는 거의 폐허화되었다.

도보성지순례 유의사항

1. 도보순례를 위한 준비물은 간단하게 꾸리는 것이 좋습니다.
2. 도보순례를 하는 동안에는 가능한 사담이나 집담을 삼가해 주십시오. 집중력이 저하되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약 40-50분을 걸은 후 10분 간 반드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개인이나 단체의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식사나 숙박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스스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열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당 사무실에 연락하여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5.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신속히 연락하십시오.
6. 순례 시에는 야생동물의 습격,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되므로 혼자서 순례하는 것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바치는 기도

(성모경)
자비로우신 주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친척 엘리사벳을 돕기 위하여 길을 나선 겐손과 순명의 여인 마리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듯이 지금 길을 떠나는 저희를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어 목적이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또한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길에서 얻는 기쁨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며 열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순례의 길을 마치면서 바치는 기도

(성모경)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기뻐던 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을 주님께 봉헌하며 청하오니, 건강할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참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울러 이 세상이 살면서도 늘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지상의 나그네로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굳은 믿음과 희망을 지니게 하시고 이 순례의 끝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사랑의 찬상 잔치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